

향장 월계수를 이용한 염색성에 관한 연구

배기현 · 정연옥* · ¹이신희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경북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2004. 7. 1. 접수/2004. 10. 20. 채택)

The Study of the Dyeability of Laurel Tree Extracts

Ki Hyun Bae · Yeon Uk Jeong* · ¹Shin 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pook University
*Dept. of Inorganic Materials Eng., Kyungpook University
(Received July 1, 2004/Accepted October 20, 2004)

Abstract—The dyeings of cotton and silk fabric with Laurus tree extracts were investigated. The colorant was extracted with distilled water at 100 °C for 1h. Dyeability(K/S), color fastness and antibacterial property of cotton and silk fabric were tested under conditions of various time, temperature, concentration, repeat-number of dyeing and mordants. The characteristics of dyeings Laurus extracts were figured out by K/S and CIELab values and color-fastness test was estimated in terms of wash fastness and light fastness. The maximum wavelength of spectrum was 670nm. The K/S value of cotton and silk fabric increased with increasing dyeing time and the exhaustion was saturated in 90min. Optical dyeing temperatures of cotton and silk fabrics were 60 °C and 80 °C respectively. The mordant effect on cotton fabric was achieved using Fe mordant. On the other hand, the mordant effect on silk fabric was obtained using Fe and Cu mordants. The wash fastness of cotton fabric was higher than that of silk fabric. Antibacterial property of silk dyeing was greater than that of cotton dyeing. In addition, the excellent antibacterial effect was imparted by Fe-post mordant method.

Keywords : Laurel, natural dyeing, cotton, silk, antibacterial property

1. 서 론

천연염료는 염색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염료로서 화학염료가 나타낼 수 없는 아름다운 색깔을 창출할 수 있고, 색상이 변하거나 퇴색되어도 안정된 색감으로 은은한 색상을 나타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2)} 천연염료라 함은 보통 식물염료를 말하며, 초목염이

라고도 한다. 국내의 식물염료 자원은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수집될 수 있다. 현재 많이 이용되는 천연염재는 쪽, 홍화, 소목, 울금, 황련, 황백, 정향, 도토리, 감, 녹차, 지초, 포도, 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³⁾ 이런 식물 염료는 그 채취 부위를 다르게 하여 색상을 다르게 발현시켜 염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약리 작용들을 이용하여 기능성 소재로서도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는 항균·항암성을 가지

¹Corresponding author. Tel. : +82-53-950-6221; Fax.: +82-53-950-6219 ; e-mail : shinhee@knu.ac.kr

며, 천연염료로 염색된 의복을 착용하면 피부가 보호되기도 하며, 각종 해충으로부터 신체가 보호되기도 하고 염색재료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띠는 장점이 있다.^{4,7)} 그러나 세탁 및 일광견뢰도가 낮고, 원료의 한계성 때문에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점과 염색공정이 복잡하고, 색의 재현성을 얻기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⁶⁾

월계수는 향장 월계수, 치장 월계수, 약장 월계수 3종류가 있다.⁸⁾ 이 중 본 연구에서 염색에 사용한 향장 월계수의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 남부 유럽이며 학명은 *Laurus*로 라틴어의 "칭송한" 뜻인 *Laudis*가 변한 말이다. 중명인 *Nobilis*도 "고귀한"이란 뜻으로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에 경기의 승자나 전투의 승자 및 대시인에게 월계수의 잔가지로 만든 관을 씌워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향장 월계수는 좋은 향기가 나므로 방향성 검위약이나 요리시 부향제로 사용됨은 물론 관상용 및 약리 물질로 두통, 중풍, 저혈압, 피부미용, 피로회복, 정력강화, 손발저림, 혈액순환, 혈관확장 등의 치료에 많이 이용될 뿐 아니라 특히 다른 한약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컴퓨터, TV, 휴대폰, 차 실내 전자파 오작동 방지, 수맥차단 및 전자제품으로 발생하는 전자파 차단에 효능이 있다.^{9,11)}

본 연구에서는 향장 월계수 잎에서 염액을 추출하여 셀룰로오스계 섬유인 면포와 단백질계 섬유인 견포에 대한 염색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향장 월계수를 이용한 천연염색의 최적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염색시의 염색시간, 염액 농도, 염색온도, 염색반복횟수에 따른 염색성을 조사하였으며 염색 후 매염제 처리에 따른 염색성, 색상변화, 세탁 및 일광견뢰도, 항균성 등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는 면과 견으로 KS K 0905 표준 면포와 KS K 0905 표준 견포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시료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염색료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향장 월계수(한국산)의 생잎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약으로는 황산구리(copper sulfate, $\text{CuSO}_4 \cdot 5\text{H}_2\text{O}$), 황산제1철(iron sulfate, $\text{FeSO}_4 \cdot 7\text{H}_2\text{O}$), 명반(aluminum sulfate, $\text{Al}_2(\text{SO}_4)_3$), 중크롬산칼륨(potassium dichromate, $\text{K}_2\text{Cr}_2\text{O}_7$),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NaCl), (이하 Cu, Fe, Al, Cr, Na과

합) 등 1급 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염액 추출은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fabrics used

Fabric	Wave	Yarn Number		Fabric count (threads/5cm)		Weight (g/m^2)
		Warp	Weft	Warp	Weft	
Cotton	Plain	30 'S	36 'S	141	135	25 ±
Silk	Plain	21D	21D/2	276	192	100 ±5

2.2 염액의 제조

본 연구에서는 향장 월계수 생잎을 구입하여 먼저 깨끗이 세척한 후 잘게 썰어 믹서에 넣고 갈아준다. 염액(향장 월계수) 150g에 증류수 1ℓ를 넣고 100℃에서 1시간동안 끓여 추출한 후 100mesh 필터 망으로 3번 여과, 굵은 입자와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은 추출액을 100%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100%염액의 건조에 의한 염료농도는 0.96%였다.

이렇게 추출한 염액의 최대흡수파장을 측정하기 위해 DU 800 Spectrophotometer(DU 800 System and Applications Software, Default Method)를 사용하여 200~800nm의 파장에서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2.3 염색

2.3.1 염색조건에 따른 염색성

향장 월계수로부터 상기 2.2항의 방법으로 추출한 염액을 사용하여 견직물(30×30, 약 6.19g)과 면직물(30×30, 약 9.15g)을 Shaking Water Bath-(SW-90MW, Sang Woo Scientific Co.)로 염색조건(염색시간, 염액농도, 염색온도, 염색반복횟수 등)을 변화시키면서 염색하였다. 이 때 욕비는 1:100으로 하였으며 염색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염색시간변화 조건은 염액농도 100%로 일정, 염색온도 60℃로 일정하고 두고, 염색시간을 30, 60, 90, 120min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염색하였다.

둘째, 염액농도변화 조건은 염색시간 60min 으

로 일정, 염색온도 60℃로 일정하게 두고, 염액농도를 40, 60, 80, 100%로 변화시켜가면서 염색하였다.

셋째, 염색온도변화 조건은 염액농도 100%로 일정, 염색시간 60min으로 일정하고 두고, 염색온도를 40, 60, 80, 100℃로 변화시켜가면서 염색하였다.

넷째, 염색반복횟수변화 조건은 염액농도 100%로 일정, 염색시간 60min으로 일정, 염색온도 60℃로 일정하게 두고, 염색반복횟수를 1회, 2회, 3회, 4회로 변화시켜가면서 염색하였다. 이렇게 염색한 염색포는 염색한 후 상온에서 여러 번 수세하여 건조시켰다.

2.3.2 매염제 사용에 따른 염색성

본 시험에서는 황산구리 (copper sulfate, CuSO₄ · 5H₂O), 황산제1철 (iron sulfate, FeSO₄ · 7H₂O), 명반 (aluminum sulfate, AlK(SO₄)₂), 중크롬산칼륨 (potassium dichromate, K₂Cr₂O₇), 염화나트륨 (sodium chloride, NaCl) (이하 Cu, Fe, Al, Cr, Na라 함) 등 5종 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 때 각 매염제별로 농도 1%(owf)로 하여 액비 1:30, 염색온도 60℃, 염색시간 30분간 후매염법으로 매염제 처리하였다.

2.4 염색성 측정

염색되어진 각각의 시료들에 대하여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해 염색된 각각의 시료에 대한 K/S값 및 색차는 CCM(Datacolor,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5 세탁 견뢰도 및 일광 견뢰도 측정

세탁 견뢰도는 KS K 0430 A-1에 의거하여 Launder-O-Meter(HAN WON Co. Model HT-700)를 사용하였으며, KS K 0066에 의거하여 세탁후의 시료를 표준회색색표를 이용하여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일광 견뢰도는 KS K 0700에 의거하여 Carbon-Arc Type Fade-O-Meter(AATCC Electric Device)를 사용하여 표준퇴색시간동안 광조사한 후 KS K 0066에 의거하여 일광후의 시료를 표준회색색표를 이용하여 일광 견뢰도를 측정하였다.

2.6 항균성 측정

항균성 시험은 정량적인 방법인 셰이크 플라스크법(Shake Flask method, C.T.M 0923)에 의하여 공시균으로 *Staphylococcus aureus*(ATCC 6538)와 *Klebsiella pneumoniae*(ATCC 4352)을 사용하였고 균감

소율(bacteria reduction rate)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text{bacteria reduction rate(\%)} = [(A-B)/A] \times 100$$

where,

A : bacteria number per 1ml in flask before shaking(0-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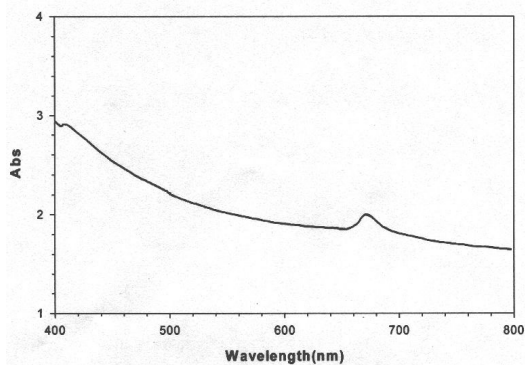
B : bacteria number per 1ml in flask before shaking(test-time)

3. 결과 및 고찰

3.1 DU 800 Spectrophotometer 에 의한 스펙트럼 측정

Fig. 1은 향장 월계수 염제에서 추출한 염액의 색소용액을 UV-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최대흡수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향장 월계수에서 추출한 색소용액의 최대흡수파장은 670nm으로 나타났으며, Blue계열의 색소임을 알 수 있다. 향장월계수 추출물에는 이 색소뿐만 아니라 계피향을 내는 방향성 물질, 유해 전자파 차폐 등¹²⁾ 다른 물질도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들이 단순한 불순물인지, 색소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된다.

Fig. 1. UV spectrum of extracted colorant from Laurus.



3.2 염색조건에 따른 염색성

3.2.1 염색시간에 따른 염색성

Table 2는 염색시간 경과에 따른 염색특성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K/S값으로 나타내어지는 염색성은 견포가 면포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면포와 견포 모두 염색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염색성이 증가하며 면포의 경우 염색시간 90min 이후에는 K/S값이 1.61로 일정하였다. 이는 염색시간 90min 이후에는 면포에 대한 염료의 염착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염착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염색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견포는 염색시간 30min~60min 사이에서 염색시간 경과에 따른 염색성의 증가폭이 컸으며, 염색시간이 늘어날수록 염색성의 증가폭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견포는 염색시간 120min 이후에는 견포에 대한 염료의 염착량이 서서히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염착이 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CIE 표색계에 의한 색특성은 면포와 견포 모두 염색시간이 늘어날수록 L^* 값으로 나타내어지는 명도는 점점 어두워졌으며, 색방향 a^* , b^* 는 염색시간이 늘어날수록 면포가 $+b^*$ 쪽으로 황색을 나타내면서 $-a^*$ 로 약간 녹색을 가미한 옅은 베이지색으로, 견포는 $+b^*$ 쪽으로 황색을 나타내면서 $+a^*$ 쪽으로 약간 적색을 가미한 황·갈색으로 변해 가는 경향을 보였다. C^* 는 염색시간이 경과할수록 면포와 견포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견포의 경우가 면포보다 클 뿐 만 아니라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것

으로부터 견포의 색상이 면포보다 시간경과와 함께 더욱 맑아지는 경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3.2.2 염액농도에 따른 염색성

Table 3은 면포 및 견포의 염액농도에 따른 염색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염액농도 40, 60, 80%는 염액농도 100%를 희석하여 조제한 것이다. 염액농도 증가에 따른 염색성은 면포와 견포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모든 농도 범위에서 견포의 염색성이 면포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면포의 경우 염액농도 증가와 함께 전체적인 K/S값은 낮지만 거의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견포의 경우 염액농도 60%이상까지는 K/S값이 많이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매우 크고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그 증가폭이 둔화되어 염액농도 80% 및 100%에서 K/S값이 거의 포화상태를 나타내었다

CIE 표색계에 의한 색특성은 면포와 견포의 경우 염액농도가 증가할수록 명도는 차츰 어두워졌으며, 색방향 a^* , b^* 는 면포가 $+b^*$ 쪽으로 황색을 나타내면서 $-a^*$ 로 약간 녹색을 가미한 옅은 베이지색

Table 2. Effect of dyeing time on colorimetric values of dyeings

color factors time (min)	K/S		L^*		a^*		b^*		h		C^*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30	1.38	6.28	93.02	89.58	-0.22	-0.32	4.37	11.99	92.90	91.51	4.37	11.99
60	1.48	11.71	92.77	87.50	-0.24	0.09	4.73	18.78	92.87	89.73	4.74	18.78
90	1.61	14.11	92.49	86.32	-0.23	0.66	5.45	21.47	92.45	88.24	5.45	21.48
120	1.61	15.81	92.38	85.55	-0.19	1.15	5.50	23.26	92.00	87.16	5.50	23.28

Table 3. Effect of dyeing concentration on colorimetric values of dyeings

color factors concentration (%)	K/S		L^*		a^*		b^*		h		C^*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40	1.03	6.46	93.16	89.19	-0.10	-0.31	3.46	12.86	91.58	91.40	3.46	12.87
60	1.28	10.15	92.85	87.73	-0.22	-0.06	4.49	17.72	92.79	90.18	4.49	17.72
80	1.31	10.60	92.62	87.90	-0.22	-0.18	4.50	17.74	92.84	90.58	4.51	17.74
100	1.48	11.71	92.77	87.50	-0.24	0.09	4.73	18.78	92.87	89.73	4.74	18.78

으로, 건포는 +b*쪽으로 황색을 나타내면서 -a*에서 +a*쪽으로 적색을 가미한 황·갈색으로 변해가는 경향을 보였다. C*는 염색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건포의 색상이 면포보다 조금 더 높게 차츰 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2.3 염색온도에 따른 염색성

Table 4는 면포 및 건포의 염색온도에 따른 염색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염색시간과 염색농도에 서와 마찬가지로 건포의 염색성이 염색온도에 무관하게 면포보다 더욱 우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염색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염색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그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염색 실험 결과에서는 염색특성이 염색온도에 거의 의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면포는 약 60℃, 건포는 약 80℃를 기점으로 오히려 염색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장 월계수의 염색을 이용한 염색은 면의 경우 약 60℃에서, 건의 경우 약 80℃에서 염색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CIE 표색계에 의한 색특성은 면포에 경우 염색온도가 높아질수록 명도가 차츰 어두워졌으며, 색

방향 a*, b*는 염색온도가 높아질수록 면포가 +b*쪽으로 황색을 나타내면서 -a*로 약간 녹색을 가미해 옅은 베이지색으로 변해가는 경향을 보였다. 건포에 경우 명도 L* 값이 염색온도가 80℃까지 높아질수록 조금씩 낮아져 명도가 차츰 어두워지다가, 특히 80℃ 이상의 온도에서는 오히려 명도가 밝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색방향 a*, b*는 염색온도가 80℃까지 높아질수록 건포가 +b*쪽으로 황색을 나타내면서 +a*쪽으로 약간 적색을 가미한 황·갈색으로 변해가다가, 80℃ 이상의 온도에서는 오히려 a*와 b* 값이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염색온도가 80℃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염색이 잘 되지 않아 색상도 오히려 80℃를 기점으로 얼어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C*는 염색온도가 높아질수록 건포의 색상이 면포보다는 조금 더 높게 차츰 맑아지다가 80℃ 이후로는 모두 다 조금씩 탁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3.2.4 염색반복횟수에 따른 염색성

Table 5는 면포 및 건포의 염색반복횟수에 따른 염색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면포와 건포는 염색반시간 경과 특성보다도 매우 현저하였다. 따라서 염색시간 증가보다 염색 반복횟수 증가가 염색성

Table 4. Effect of dyeing temperature on colorimetric values of dyeings

color factors temperature (°C)	K/S		L*		a*		b*		h		C*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40	1.23	10.18	93.35	88.12	-0.23	0.05	4.28	16.62	93.05	89.84	4.29	16.62
60	1.48	11.71	92.77	87.50	-0.24	0.09	4.73	18.78	92.87	89.73	4.74	18.78
80	1.38	14.51	92.58	83.49	-0.06	2.38	4.95	21.47	90.67	83.68	4.95	21.60
100	1.40	11.47	92.48	85.01	-0.02	1.75	4.89	19.26	90.24	84.81	4.89	19.34

Table 5. Effect of multiful dyeings on colorimetric values

color factors repeat number	K/S		L*		a*		b*		h		C*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k	Cotton	Silk	Cotton	Silk	Cotton	Silk
1	1.48	11.71	92.77	87.50	-0.24	0.9	4.73	18.78	92.87	89.73	4.74	18.78
2	1.88	20.12	91.78	81.10	0.05	3.97	6.86	25.86	89.57	81.28	6.86	26.17
3	2.09	23.61	91.62	81.05	0.14	4.43	7.27	26.59	88.91	80.54	7.27	26.96
4	2.45	27.11	90.97	78.12	0.41	5.93	8.33	28.70	87.19	78.33	8.34	29.30

향상을 위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CIE 표색계에 의한 색특성은 면포와 견포의 경우 염색반복횟수가 늘어날수록 명도가 차츰 어두워졌으며, 색방향 a^* , b^* 는 염색반복횟수가 늘어날수록 면포가 $+b^*$ 쪽으로 황색을 나타내면서 $+a^*$ 쪽으로 약간 적색을 가미한 옅은 베이지색으로, 견포는 $+b^*$ 쪽으로 황색을 나타내면서 $+a^*$ 쪽으로 적색을 가미한 황·갈색으로 변해 가는 경향을 보였다. C^* 는 염색반복횟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였으며 견포의 색상이 면포보다 조금 더 높게 차츰 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3 매염제처리에 따른 염색성

Table 6 과 Table 7은 각각 면포와 견포의 매염제 처리에 따른 염색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매염제 처리를 한 면포의 염색성은 $Fe > Cu > 무매염 > Cr > Al > Na$ 순으로 무매염과 비교해 볼 때, Fe, Cu 를 제외한 나머지 매염제 처리에서는 염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염색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타냈다. 명도는 $Na > Al > 무매$

염 $> Cr > Cu > Fe$ 순으로 Na가 가장 밝고, Fe가 가장 어둡게 나타났다. C^* 는 $Fe > Cu > Al > 무매염 > Cr > Na$ 순으로 Fe가 가장 맑고, Na가 가장 탁하게 나타났다.

색방향 a^* , b^* 에서, 무매염 처리한 면포는 $-a^*$ 로 약간 녹색이 가미된 $+b^*$ 로 황색을 나타내는 옅은 베이지이며, Cu는 $-a^*$ 로 약간 녹색이 가미된 $+b^*$ 로 황색을 나타내는 베이지색을, Fe는 $+a^*$ 로 약간 적색이 가미된 $+b^*$ 로 황색을 나타내는 황·갈색을 그리고 Al, Cr, Na는 $-a^*$ 로 약간 녹색이 가미된 $+b^*$ 로 황색을 나타내는 옅은 베이지색을 나타내었다.

한편 매염제 처리를 한 견포의 염색성은 $Cu > Fe > 무매염 > Cr > Al > Na$ 순으로 무매염과 비교해볼 때 면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명도는 $Na > Al > 무매염 > Cr > Fe > Cu$ 순으로 Na가 가장 밝고, Cu가 가장 어둡게 나타났다. C^* 는 $Cu > Al > Fe > 무매염 > Cr > Na$ 순으로 Cu가 가장 맑고, 염화나트륨(Na)이 가장 탁하게 나타났다.

색방향 a^* , b^* 에서, 무매염 처리한 견포는 $+a^*$ 로 약간 적색이 가미된 $+b^*$ 로 황색을 나타내는 옅은

Table 6. Colometric data for cotton dyeings with mordant methods

color factors mordant-method		K/S	L^*	a^*	b^*	h	C^*
post-mordant	None	1.48	92.77	-0.24	4.73	92.87	4.74
	Cu	1.72	91.35	-1.69	7.63	102.47	7.81
	Fe	10.64	81.98	3.63	18.46	78.87	18.46
	Al	1.11	93.28	-0.97	5.52	99.93	5.60
	Cr	1.13	92.42	-0.52	3.60	98.26	3.64
	Na	0.87	93.60	-0.07	2.75	91.37	2.75

Table 7. Colometric data for silk dyeings with mordant methods

color factors mordant-method		K/S	L^*	a^*	b^*	h	C^*
post-mordant	None	11.71	87.50	0.09	18.78	89.73	18.78
	Cu	27.38	71.80	-7.39	21.53	108.94	22.77
	Fe	24.47	72.56	3.76	19.09	78.87	19.46
	Al	8.72	87.81	-1.40	22.51	93.55	22.56
	Cr	10.36	82.73	-2.49	16.07	98.80	16.26
	Na	6.82	88.76	0.06	13.85	89.77	13.85

베이지이며, Cu는 +b*로 약간 황색이 가미된 -a*로 녹색을 나타내는 옅은 녹색을, Fe는 +a*로 약간 적색이 가미된 +b*로 황색을 나타내는 옅은 갈색을, Al은 -a*로 약간 녹색을 가미된 +b*로 황색으로 밝은 노랑색을, Cr는 -a*로 약간 녹색이 가미된 +b*로 황색으로 옅은 연두색 그리고 Na는 +a*로 약간 적색이 가미된 +b*로 황색을 나타내는 옅은 베이지색을 나타내었다.

3.4 염색견뢰도

Table 8은 면포 피염물의 세탁견뢰도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면포에서는 무매염시 4~5등급, 매염처리시 4~5등급으로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매염제 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세탁에 따른 변·퇴색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면포의 다른 직물로의 오염특성은 침부한 섬유 등에서는 5등급으로 우수해 오염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9는 견포 피염물의 세탁견뢰도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견포에서는 무매염시 2~3등급으로 면포에 비해 등급이 낮고, 매염처리시 1~4등급으로 면포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면포에 비해 견포가 상대적으로 변·퇴색이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변·퇴색의 정도가 Cu > Na · 무매염 > Al > Fe · Cr 순으로 Cu 매염제처리시에 1~2등급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매염제처리의 효과가 면포의 세탁견뢰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에 비해 견포에서는 Na를 제외한 나머지 매염제처리의 효과가 세탁견뢰도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데, Cu에서는 1등급정도 세탁견뢰도가 떨어졌으며, 다른 매염제 즉 Fe, Al, Cr에서는 거의 1등급정도로 향상되었다. 견포의 다른 직물로의 오염특성은 전반적으로 침부한 다른 포에 대해서 5등급으로 아주 우수해 오염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Na 매염제 처리 시에만 침부한 실크, 레이온, 아세테이트

Table 8. Gray scale assessments for mordant dyeings on cotton

color fastness	washing										
	change in color	stain								light	
		Pet	Silk	Acryl	Rayon	Wool	Acetate	Nylon	Cotton		
nil	4-5	5	5	5	5	5	5	5	5	5	4
Cu	4	5	5	5	5	5	5	5	5	5	4-5
Fe	4	5	5	5	5	5	5	5	5	5	3-4
Al	4-5	5	5	5	5	5	5	5	5	5	3
Cr	4-5	5	5	5	5	5	5	5	5	5	4
Na	4-5	5	5	5	5	4-5	5	5	5	5	4-5

Table 9. Gray scale assessments for mordant dyeings on silk

color fastness	washing										
	change in color	stain								light	
		Pet	Silk	Acryl	Rayon	Wool	Acetate	Nylon	Cotton		
nil	2-3	5	5	5	5	5	5	5	5	5	4
Cu	1-2	5	5	5	5	5	5	5	5	5	4
Fe	3-4	5	5	5	5	5	5	5	5	5	3
Al	3	5	5	5	5	5	5	5	5	5	3
Cr	3-4	5	5	5	5	5	5	5	5	5	4-5
Na	2-3	5	4-5	5	4-5	4-5	4-5	5	4-5	4-5	4-5

나일론에서 4~5등급으로 약간 오염되었으나 다른 포로의 오염특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광건뢰도의 경우, 면포와 견포 모두 매염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l과 Fe 매염제처리시 다른 것에 비해 다소 1~2등급 정도 낮게 나타났다.

3.5 항균성

Table 10은 향장월계수 염색, 향장월계수 염색 후 Fe 매염제처리, 그리고 표준 면 및 견 백포의 면섬유의 항미생물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공시균주는 황색포도구균(Staphylococcus aureus(ATCC 6538))와 폐렴균(Klebsiella pneumoniae(ATCC 4352))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면포의 경우 사용공시균주에 관계없이 염색포 및 매염처리포 균 감소율이 표준포의 47~48% 보다 높은 57~59%, 75~78%로 증가하여 항균성을 나타내었으나 그 효과는 적다. 한편 견포의 경우 사용공시균주에 관계없이 염색포 및 매염처리포 균 감소율이 표준포의 49~51% 보다 높은 97~99%, 98~99%로 증가하여 높은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매염제 처리에 의한 항균성 증가는 매염제에 의해 양이온으로 대전된 면포 및 견포가 미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시알산이나 인지질 등의 음이온 전하와 서로 흡인하여 생육저지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본 연구에서 향장 월계수 염색 만으로 염색한 경우에도 견포의 경우 97~99%의 높은 정균 감소율을 나타내므로 향장 월계수의 항균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0. Bacterial reduction(%) on cotton and silk fabric

	reduction ratio(%)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	
	cotton	silk	cotton	silk
standard fabric	48.0	50.8	47.3	49.0
dyed fabric	58.7	99.2	56.8	97.0
post-mordant fabric	77.6	98.7	75.0	98.0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향장 월계수의 잎을 염재로 해서 면과 견에 천연 염색을 실시하여, 염색시간, 염액 농도, 염색온도, 반복횟수 그리고 매염제 종류에 따른 염색성, 색상변화, 염색건뢰도(세탁·일광 건뢰도) 및 항균성 특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향장 월계수를 이용한 천연염색에서는 전반적으로 단백질계 섬유인 견이 셀룰로오스계 섬유인 면보다 염색성이 우수했으며, 향장 월계수에서 추출한 색소용액의 최대흡수파장은 670nm으로 나타났다.
2. 염색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면과 견포 모두 염색성이 증가했으며, 특히 반복횟수 증가에 의한 염색시간 경과에 따라 면의 경우 염색성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3. 면포의 경우 염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염색성은 증가하였으나 견포의 경우 염액농도 60%이상의 농도에서는 염색성 증가현상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4. 온도에 따른 염색성에서, 면은 60℃까지 염색성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온도 이상에서는 오히려 염색성이 떨어졌으며, 견은 80℃까지 염색성이 증가하다가 그 온도 이후로 면포와 같이 염색성이 떨어졌다.
5. 매염제 처리에 따른 염색성의 변화에서, 면과 견포 모두 황산제1철(Fe)과 황산구리(Cu)매염제 처리 시 염색성이 향상되었으며, 나머지 매염제의 경우 염색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오히려 염색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였다.
6. 면포의 세탁건뢰도 경우, 매염제 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4~5등급으로 아주 우수하였으며, 매염제처리가 세탁건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견포의 세탁건뢰도 경우, 면·퇴색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면포보다 떨어졌으며, Fe, Al, Cr매염제 처리시에만 거의 1등급정도 향상되었으며 오염의 정도는 거의 4~5등급으로 우수하였다. 일광건뢰도에 있어, 면포와 견포 모두 매염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3~5등급으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l과 Fe 매염제처리시 다른 매염제에 비해 낮은 3~4등급으로 나타났다.
7. 항균성은 사용균주에 관계없이 염색된 면포보다 염색된 견포가 우수하였다.

참고문헌

1. S. I. Ali, Revival of natural dyes in Asia, *Soc. Dyers Colourists*, **109**(1), 1-11(1993).
2. B. Glover and J. H. Pierce, Are natural colorants good for health?, *Soc. Dyers Colourists*, **109**(1), 21-30(1993).
3. S. R. Lee, Y. H. Lee, I. H. Kim, and S. W. Nam, A Study on the Antibacterial and Deodorization of Silk Fabrics Dyed with Natural Dye (II) -Sappan Wood-, *J. Korean Soc. Dyers & Finishers*, **7**(4), 74-86(1995).
4. Y. H. Park, Y. J. Nam, and D. H. Kim, The Study of Antibiosis of the Fabrics Dyed by Wormwood Extract,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 **24**(1), 67-76(2000).
5. B. H. Kim and W. S. Song, The Study of Natural Dyes on the Flowers(I)-The Dyeability and Antimicrobial Activity of *Sophora japonica*-, *J. Korean Soc. Clothing Industry*, **2**(2), 113-117(2000).
6. K. H. Song and C. E. Baik, A Study on Natural Dyeing with Walnut Hull Extracts(I), *J. Korean Soc. Living Science*, **11**(4), 391-340(2002).
7. S. K. Bai, The Study of the Dyeability of *Forsythia Koreana* NAKAI, *J. Korean Soc. Dyers & Finishers*, **15**(5), 26-31(2003).
8. 김창민, 신민교, 안덕균, 이경순, “중약대사전”, 도서출판 정담, 7, pp3371(1997).
9. 배성한, “향장월계수 연구자료”, 한국약용작물연구원 (1999).
10.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연세대의대 의학공학교실 연구자료(2001).
11. 배성한, 특허출원번호 10-2000-0079955(2000).
12. Y. S. Shin and K. G. Min, Chitin/Chitosan : Antimicrobial Properties and Applications,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8**, 591-595(1997).